

대불산단 변전소 건립 싸고 갈등

한전 "건설일정 촉박...산단 내 건립 불가피" 업체 "용지 부족·전자파 위험...외곽 설립을"

영암군 삼호읍 대불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변전소 건립을 놓고 한전과 입주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업체들은 공장용지 부족과 전자파 노출 등을 이유로 산단 외곽에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측은 일정이 촉박해 산단내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광주전력관리처는 30일 대불산단에서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변전소 설명회를 갖고 2011년 6월까지 대불산단에 24만kV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변전소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이날 "2012년이 되면 기존 변전소(16만kV)만으로는 240여 개 입주업체에 원활한 전력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변전소를 건립하게 됐다"면서 "산단 밖에 변전소를 설치할 경우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70~8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20개월 정도면 가능한 산단 내에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 "전자파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육내 변전소로 건립하고 송전선로도 지중화할 계획"이라면서 "변전소 부지도 1천 600여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는 신규 변전소 위치를 산단 외곽으로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입주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력량이면 신규 변전소 건립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대불산단 외곽은 공장용지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내에 변전소까지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변전소를 산단 내에 짓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한전, 대불산단 입주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합동실사반을 구성, 신규 변전소의 건립 위치와 시기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생명의 땅' 순천만... 흑두루미 올 첫 관측

순천만 흑두루미가 올해 처음으로 관측됐다. <사진>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순천만에서 흑두루미가 첫 관측된 뒤 28일 63마리, 29일 110여 마리 등 개체 수가 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8일 늦은 것으로 더운 가을이 지속되면서 흑두루미가 중간 기착지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순천만에는 흑두루미 외에도 청둥오리와 고방오리, 쇠오리 등의



물오리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민물도요 등 겨울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현기자 light64@

무안 '한·중 국제산단' 국토부 심의 통과

승인 신청 3개월만에...조성사업 탄력

무안기업도시의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30일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국제산단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부 중도위 심의에서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통과됐다.

지난 7월 말 국토해양부에 승인신청을 하고 중앙부처 17개 부처와 유관기관의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이후 3개월만이다.

무안군은 다음달 열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업도시심의위원회도 무난히 통과해 한중국제산단이 조성사업이 3년여만에 최종 승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자본이 투입되는 한중국제산단 개발사업은 한중국제산단개발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시행사로 2012년까지 무안군 무안읍, 청계·현경면 일대 17.7km 부지에 1조 5천280억원을 투입해 산단이 조성된다.

인구 5만5천명 규모로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이 들어서며 무역과 금융·문화 등 복합산업도시기능과 해상물류, 임대형 공장을 갖춘 세계 최대 도매유통단지도 건립된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강진 배진강 강태공의 망중한



강진군 병영면 배진강에서 쪽배를 띄우고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의 모습이 한가롭다. 멀리 느리나루 사이로 보이는 돌담이 복원공사가 한창인 전라병영성 성곽이다. <강진군 제공>

신안군의원 집단폭행 연루 논란

수협 직원 "폭행 당했다" 고발 해당 군의원 "말렸을 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신안군의원이 수협 직원을 집단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흑산도수협 박모(44) 과장은 "지난 28일 오후 7시께 흑산면 예리 흑산수협 숙소타운 노상에서 P모(49) 군의원과 일행 김모(51)씨 등 3명으로 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목포경

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안경이 깨지고 왼쪽 눈 밑이 1cm가량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P의원은 "때린 사실이 없으며 중간에서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P 의원은 신안군이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지원한 도산 건조사업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신안=조완근기자 wncho@

전남에 가뭄 대책비 50억 추가 배정

저수지 준설·대형 관정 개발 등 투입

전남도가 가뭄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추가 배정받았다.

전남도는 30일 "최근 정부의 가뭄 대책비로 1차 32억원, 2차 57억원 등 2차례에 걸쳐 89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가을 가뭄 피해가 커지고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뭄대책비는 우선 가뭄이 심

한 지역의 저수지 준설을 비롯한 관정개발 등에 투입된다.

또 내년 봄 가뭄에 대비 이미 설치된 양수장과 대형관정 등 양수장비 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 필요시 재정비할 계획이다.

고근석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가뭄이 내년 봄에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적 가뭄대비를 위해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및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청자 운반, 전통 한선 타실 분!

강진군 배길 재현사업...선장·선원 모집

"전통 한선을 타고 개성까지 갈 선원을 찾습니다"

청자운반선 배길 재현 사업을 추진 중인 강진군이 전통 한선을 운항할 선장과 선원 모집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항해사 자격증이 있

는 선장과 키잡이, 돛잡이 각 1명씩이며 청자문화재를 재조명하는 역사적인 프로그램인 만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천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고려 중기 9세기부터 강진고려청자가 서해 배길 900여km를 따

라 개성까지 운반했던 옛 항로를 재현하는 프로젝트다.

전통 한선은 계절풍이 순풍(順風)으로 바뀌는 시기에 맞춰 내년 8월 초 청자 수백 점을 싣고 강진만을 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시 청자를 싣었던 길이 19~20m, 너비 10m 규모의 전통 한선(온누비호)이 고증과 설계를 거쳐 내년 6월까지 복원된다. 문의 (061-430-3221)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완도해경, 고구마 캐기 봉사

완도 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가 농촌 일손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재근 경위와 정경 등 완도해경 직원 10명은 비번인 30일 완도를 가용리 임재흥(63)씨 소유 밭 6천600여㎡(2천평)에서 고구마 캐기 봉사를 실시했다. <사진>

박재근 경위는 "농어촌이 대부분 노인들뿐이어서



농사나 바다양식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일손돕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jechung@

<p>메가박스 구.린던약국사거리 ☎1544-0600</p> <p>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최고급판 2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3관 미쓰 홍당무(18세)/아내가 결혼했다(18세) 4관 쿤'바이 (12세) 5관 बैं크 잡 (15세) 6관 그 남자의 책 198쪽(12세)/너를 잊지않을거야(전세) 7관 맨 데이트 (18세) 8관 공작부인 (15세) 9관 이글아이 (12세)</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2관 맨 데이트 (18세) 3관 너를 잊지않을거야 (전세) 4관 맘마미아 (12세)/신기전 (15세) 5관 데스 레이스 (18세) 6관 미쓰홍당무(18세)/비빌론 A.D(12세) 7관 바디 오브 라이즈(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좌석의 주차장 300대 • 요금 3,500원</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의역역전편)</p> <p>1관 맘마미아 (18세)/쿤'바이(12세) 2관 그 남자의 책 198쪽(12세)/도쿄(15세)/맨 데이트(18세) 3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4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5관 클라미터더본(3D)(전세)/데스레이스(18세) 6관 बैं크 잡 (15세) 7관 이글아이(12세)/미쓰홍당무 (18세) 8관 화교(12세)/너를 잊지않을거야(전세) 9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10관 이글아이 (12세)</p> <p>•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심점 (10개관) 잡티 상영중 1588-7941 상도영입관 받음 -1관/2관/3관</p>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p> <p>1관 बैं크 잡 (15세) 2관 미쓰홍당무(18세)/그남자의책198쪽(12세) 3관 클라미터더본(전세)/아내가 결혼했다(18세) 4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5관 맨 데이트(18세)/너를 잊지않을거야(전세) 6관 이글아이 (12세) 7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p> <p>•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북 서무니(오전9시-오후11시) ARS 전화예약 1544-0070</p>	<p>하미 시네마 진대후문 하미포스트 ☎267-7777</p> <p>1관 그 남자의 책 198쪽 (12세) 2관 미쓰 홍당무 (18세) 3관 맨 데이트 (18세) 4관 도쿄 (15세)/화교(15세) 5관 맘마미아 (12세) 6관 신기전 (15세) 7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8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 9관 이글아이 (12세) 10관 너를 잊지 않을거야(전세)</p> <p>• 500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85 매일 실마 • 이동 통신사 & OK 캐쉬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북점 26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닭구장</p>	<p>제일 시네마 충정로 37가 ARS 전화예약 227-1800</p> <p>1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2관 아내가 결혼했다(18세)/미쓰 홍당무(18세) 3관 너를 잊지 않을거야 (전세) 4관 이글아이 (12세) 5관 맨 데이트 (18세) 6관 바디 오브 라이즈 (15세)</p> <p>• 무료주차 3시간 (평주 세무소 앞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약 227-1800</p>
---	--	---	---	--	---